

그러면 안전의 정답은 몇 개인가?



어느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칠판에 점을 찍어 놓고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모두 조용하게 있다가 한 명이 칠판에 그린 점에 대해 소리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정말 놀랐습니다.

어제 유치원에 가서 똑같이 물었더니 50명의 어린이가 모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울빼미의 눈, 담배꽂초, 전신주 꼭대기, 별, 조약돌, 쭈그러진 풍뎡이, 상한 달걀 등 기발한 답이었지요.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10년동안 정답을 찾는 방법은 배웠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의 정답은 몇 개인가?

감히 단정한다면, 단 한 개뿐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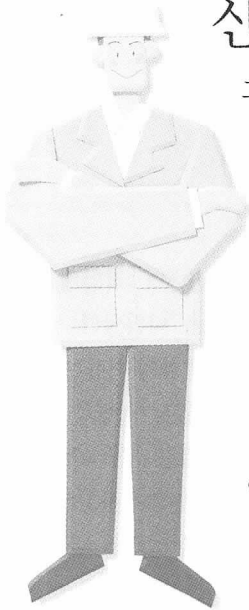
그러나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가 끝없는 자기의견의 제시와 상호간 대화로써 창의적인 정답을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사업장에 건강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사업장에서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분진, 유해·위험물질 등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갖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설마 했습니다



산 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하는 근로자수가 1년이면 5만여명을 헤아린다고는 하지만 어디 사고를 당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인가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내 일터에서 내게 너무나 익숙한 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뼈와 살이 부서지는 고통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을 통해 체득한 안전의 소중함. 이 교훈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 싶습니다.

안전은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설재해는 흔히 무관심과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일 하나에도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무재해 현장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재해사례 그 자체는 안전작업의 교훈입니다.